

P.I.R.A.M

1. 개념의 정의

수능 국어의 특징은 지문 내에 서술된 내용으로만 문제의 답이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배경지식을 제외하면 여러분이 문제풀이에 사용하셔야 할 개념은 모두 지문 내에 서술되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문제를 오류 없이, 정확히 풀어내기 위해서는 지문에 제시된 개념들의 '정의'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합니다.

나아가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인 '화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화제'를 구성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의 화제는 여러 가지 개념들의 관계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것이니까요.

다른 독해 태도를 올바르게 정립하더라도, 지문에 정의된 개념들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독해는 알맹이 없는 껍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개념의 정의'를 평가원은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까요? 평가원은 크게 두 가지, '일반적인 정의'와 '수식된 정의'를 사용합니다. 먼저, 일반적인 정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알아보시다.

일반적인 정의

말 그대로 아주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방식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간단합니다. 개념을 먼저 제시한 후에 설명을 나중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장 형태로 표현하면, 'A란 B이다.', 'A은(는) B이다.' 등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죠. 개념의 정의를 체크한다는 것은, 'A(개념)=B(정의)'라는 도식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념이 먼저 제시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 않게 'A=B'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연습하면 어렵지 않게 숙달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예시를 통해 '일반적인 정의'의 방식으로 '정의를 서술하는 문장'을 공부해 봅시다.

예를 들어 볼까요?

'텍스트'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모든 인공물을 이르는 용어이다. 쇼윈도는 '소비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이다.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 '텍스트'라는 개념에 대해 정의해 준 후 '쇼윈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텍스트'의 정의부터 살펴봅시다. 'A는 B이다.'라고 서술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A가 B라는 점에 집중해서 문장을 읽어줘야 합니다. 만약 정의가 길어서 파악이 힘들 경우, 주어(S)와 서술어(V)에 초점을 맞춰서 독해하면 한결 쉬워집니다. 그 후 각종 관형어나 부사어 같은 수식을 챙겨주면 되는 것이죠. '텍스트'라는 개념의 정의를 한 번에 이해하는 것이 어려웠다면, 아래 서술된 사고 과정을 따라서 이해하는 연습을 해봅시다.

→ 텍스트(S)는 인공물이다.(V) → 어떤 인공물이지? → 여기서 인공물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된 것이구나.

→ 아! 그러니까 텍스트(개념)는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소통할 목적으로 생산한 인공물이네(정의).

→ 이렇게 ‘텍스트’라는 개념에 대해 이해했으니, 이제 ‘쇼윈도’가 무엇인지 이해해 봅시다. 쇼윈도는 일종의 공간 ‘텍스트’라고 합니다. 쇼윈도의 정의에 우리가 위에서 이해했던 ‘텍스트’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네요? 평가원은 앞에서 정의해 줬던 개념이 등장할 경우 그 개념을 뒤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정보들 간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모이면 한 지문의 ‘화제’가 되기 때문에, 앞 부분에서 정의해주는 개념을 정확히 숙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 우리는 ‘텍스트’라는 개념을 숙지했기 때문에 ‘쇼윈도’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쇼윈도’가 ‘공간 텍스트’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쇼윈도는 ‘공간과 관련된 인공물’일 것이고, 그 ‘쇼윈도’라는 ‘텍스트’의 목적은 문장에 써 있는 ‘소비 행위’일 것입니다.

→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공간/텍스트’라는 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살리고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배웠듯이, 단어의 의미를 살리며 개념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정의를 이해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공간/텍스트’에서 ‘공간’이라는 의미를 살렸다면, ‘쇼윈도’라는 것이 ‘공간’에 위치하며 ‘텍스트’의 역할을 한다는 식으로 정의를 훨씬 깊게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 다시 강조하지만, 평가원 지문의 개념들은 이렇게 서로 엮이고 부딪히며 한층 고차원적인 개념을 형성합니다. 그 개념들의 관계를 선지로 물어보면 어려운 내용 일치 문제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문장들을 통해 더 공부해볼까요?

*각 문장/단문 아래에는 여백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힘은 손으로 쓰는 데에서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해당 문장을 보면서 했던 생각, 해설지를 읽으면서 했던 생각 등을 아래 여백에 쓰면서 공부해 보세요. 물론 쓰는 데에만 매몰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옮긴다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세요.

1

이용의 자주성은 상황에 알맞게 디지털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2

삽입 정렬은 정렬된 부분에 정렬할 원소의 위치를 찾아 삽입하는 방식이다.

(2020학년도 10월 학력평가)

3

반론권은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순수한 의견이 아닌 사실적 주장(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지면이나 방송으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4

언어 지도는 일정 지역의 언어적인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지도 형식을 빌려 표시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를 공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5

하나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학년도 7월 학력평가)

6

일반적인 소리는 사람의 귀로 감지할 수 있지만 초음파는 진동수가 20,000Hz가 넘어서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이다.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7

실체설은 인권과 같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를 공익이라 보는 입장이다.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8

‘예술계’란 어떤 대상을 예술 작품으로 식별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당대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지식과 이로 그 리고 태도 등을 포괄하는 체계를 가리킨다. (2016학년도 3월 학력평가)

단문 단위 독해 연습 - 기본

1

별의 밝기는 등급으로 나타내며,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라고 한다. 절대 등급은 별이 지구로부터 10 파섹(약 32.6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별의 겉보기 등급으로 정의한다. 학자들은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인 거리지수를 이용하여 별까지의 거리를 판단하며, 이 값이 큰 별일수록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B형)

2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 공공 서비스의 특성은 배제성과 경합성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배제성은 대가를 지불하여야 사용이 가능한 성질을 말하며, 경합성은 한 사람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성질을 말한다. 이러한 배제성과 경합성의 정도에 따라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국방이나 치안은 사용자가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다. 이에 비해 배제성은 없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무료로 이용하는 공공 도서관에서 이용자가 많아 도서 열람이나 대출이 제한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015학년도 수능 A형)

3

NMR 분광계는 당시에 유일하게 배리언사에서 제작하고 있었는데, 로버츠는 이것의 가치를 남들보다 일찍이 인식하고 1950년대부터 이 기구로 미지의 분자 구조를 밝혀내기 시작했다. 로버츠는 '선도 사용자'로서 유기 화학계에 이 기구의 유용성을 열심히 알렸다. 그는 NMR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이 기구를 사용하여 연구하는 방법을 가르쳤고 그 내용을 정리하여 교재로 출판했다. 로버츠의 노력에 힘입어 이 기구를 사용하는 연구자의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 이 단문을 이해한 뒤, 아래 문제도 풀어봅시다.

Q. 로버츠가 수행한 '선도 사용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NMR 분광계의 작동 원리를 파악하여 그것의 개선에 기여했다.
- ② NMR 분광계의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관련 학술지를 만들었다.
- ③ NMR 분광계를 일찍부터 사용하고 그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④ NMR 분광계의 장점을 관련 과학 분야에 널리 알려 그것의 보급에 기여했다.
- ⑤ NMR 분광계의 제작사가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이론을 제공했다.

4

최근 들어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략의 하나로 창조적 인재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도시인 창조 도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즉 창조 도시는 인재들을 위한 문화 및 거주 환경의 창조성이 풍부하며, 혁신적이고도 유연한 경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는 도시인 것이다. (2009학년도 수능)

5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필요량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필수아미노산이라고 한다. 제한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필수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아미노산을 말한다. 가령, 가상의 P 단백질 1몰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아미노산 A와 B가 각각 2몰과 1몰이 필요하다고 하자. P를 2몰 합성하려고 할 때, A와 B가 각각 2몰씩 공급되었다면 A는 필요량에 비해 2몰이 부족하게 되어 P는 결국 1몰만 합성된다. 이때 A가 부족하여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되기 때문에 A가 제한아미노산이 된다. (2015학년도 수능 A형)

6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된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AB형 공통)

(해설 p.121)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에게 개인적 선호(選好)를 드러내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할까? 도덕 철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도덕적 정당화의 조건으로 공평성(impartiality)을 제시한다. 공평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신체와 생명, 복지와 행복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어떤 개인에 대해 행위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도덕적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공평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특정 개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상대가 가족인 경우는 개인적 인간관계의 친밀성과 중요성이 매우 강하다. 가족 관계라 하여 상대에게 특별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다음 두 경우를 생각해 보자.

철수는 근무 중 본부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동해안 어떤 항구에서 혐의자 한 명이 일본으로 밀항을 기도한다는 첩보가 있으니 그를 체포하라는 것이었다. 철수가 잠복 끝에 혐의자를 체포했더니, 그는 하나밖에 없는 친형이었다. 철수는 고민 끝에 형을 놓아 주고 본부에는 혐의자를 놓쳤다고 보고했다.

민수는 두 사람에게 각각 오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한 명은 삼촌이고 다른 한 명은 사업상 알게 된 영수였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오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고, 그보다 적은 돈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알게 된 민수는 노력한 끝에 오천만 원을 마련하였고, 둘 중 한 명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민수는 삼촌의 빚을 갚았다.

철수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동일하게 간주해야 하는 공평성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민수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그는 분명히 삼촌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했다. 민수가 공평주의자라면 삼촌과 영수의 행복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만약 영수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삼촌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영수의 빚을 갚아야 한다. 그러나 삼촌과 영수가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민수에게는 개인적 선호가 허용된다.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런 순간에도 주사위를 던져서 누구의 빚을 갚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개인적 선호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반면 온건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개인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할 여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여지가 개인적 선호의 허용 범위라는 것이다. 그들은 상황적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적 선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Q.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대화를 접하고 보일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A: 호심이 지극한 왕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다면, 법의 집행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B: 당연히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여야겠지.
- A: 그러면 왕이 그것을 막지 않겠습니까?
- B: 왕이 사사로이 막을 수는 없지. 왕의 직분으로 판단해야 하니까.
- A: 이런 상황에서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B: 내가 그 왕이라면 왕의 직분을 버리고 아버지와 도망가겠네.

- ①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허락한다면 그것은 개인적 선호가 작용한 거야.
- ② 집행관이 왕의 아버지를 잡아들인다면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의 지지를 받을 거야.
- ③ 왕이 사사로이 판단하더라도 지위를 버린다면 공평주의자들은 비난하지 않을 거야.
- ④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은 왕의 신분도 지키고 아버지도 구하는 길을 찾으려고 할 거야.
- ⑤ 온건한 공평주의자들이 볼 때, 왕이 아버지의 체포를 금지하는 것은 '민수'의 행동과 차이가 없어.

(해설 p.125)

지식의 본성을 다루는 학문인 인식론은 흔히 지식의 유형을 나누는 데에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지식의 유형은 ‘안다’는 말의 다양한 용례들이 보여 주는 의미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 예컨대 ‘그는 자전거를 탈 줄 안다’와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에서 ‘안다’가 바로 그런 경우이다. 전자의 ‘안다’는 능력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절차적 지식’이라고 부르고, 후자의 ‘안다’는 정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며, 자전거를 탈 줄 알기 위해서 반드시 자전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아무 정보 없이 그저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 자전거를 탈 줄 알게 될 수도 있다.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면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라’와 같은 정보를 이용해서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사람이라도 자전거를 익숙하게 타게 된 후에는 그러한 정보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서도 자전거를 잘 탈 수 있다. 자전거 타기 같은 절차적 지식을 갖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화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를 마음에 떠올릴 필요는 없다.

반면, ‘이 사과는 둥글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둥근 사과의 이미지가 되었던 ‘이 사과는 둥글다’는 명제가 되었던 어떤 정보를 마음속에 떠올려야 한다. ‘마음속에 떠올린 정보’를 표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식을 표상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떤 표상적 지식을 새로 얻게 됨으로써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어떤 것을 하게 될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런 점에서 표상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과 달리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능력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

표상적 지식은 다시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경험적 지식’과 ‘선형적 지식’으로 나누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경험적 지식이란 감각 경험에서 얻은 증거에 의존하는 지식으로, ‘그는 이 사과가 둥글다는 것을 안다’가 그 예이다. 물리적 사물들의 특정한 상태, 즉 사과의 둥근 상태가 감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력되고, 인지 과정을 거쳐 하나의 표상적 지식이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감각 경험을 통해 직접 만나는 개별적인 대상들로부터 귀납추리를 통해 일반 법칙에 도달할 수 있다. 따라서 자연 세계의 일반 법칙에 대한 지식도 경험적 지식이다.

한편, 같은 표상적 지식이라 할지라도 ‘ $2+3=5$ ’를 아는 것은 ‘이 사과가 둥글다’를 아는 것과는 다르다. ‘ $2+3=5$ ’라는 명제는 감각 경험의 사례들에 의해서 반박될 수 없는 진리이다. 예컨대 물 2리터에 알코올 3리터를 합한 용액이 5리터가 안 되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이 명제가 거짓이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감각 경험의 증거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이 선형적 지식이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인간에게 경험 이외에 지식을 산출하는 다른 인식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수학적 지식이 그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믿는다.

Q. 밑줄 친 말이 의미하는 바가 표상적 지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나는 그 노래를 부른 가수의 이름을 알아.
- ② 나는 세종대왕을 알아. 그분은 한글을 창제한 분이시지.
- ③ 우리 아저씨만큼 개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은 아직 못 봤어.
- ④ 내 동생은 2를 네 번 더하면 8인 줄은 아는데, ‘ $2 \times 4 = 8$ ’은 모른다.
- ⑤ 퀴즈의 답이 ‘피아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너무 긴장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

(해설 p.128)

테니스 선수 그라프는 1992년에 우승을 통해 거액을 벌었지만, 유독 숙적인 셀레스에게는 계속해서 패하였다. 그러나 이듬해 셀레스가 사고를 당해 더 이상 경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자, 그라프는 경기 능력에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승률이 거의 두 배 이상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우승 상금은 물론 광고 출연 등의 부수적 이익 또한 전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런 현상은 ‘위치적 외부성’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한 사람의 보상이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음에도,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며 지불하지도 않는 현상을 외부성이라고 한다. 특히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따른 보상이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성과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위치적 외부성이라고 한다. 위치적 외부성이 작용할 경우에 자신의 상대적 위치를 향상시키는 모든 수단은 반드시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 위치를 하락시킨다. 그라프의 사례는 경쟁자의 성과에 의해 자신의 위치적 보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위치적 외부성이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를 높이는 행동을 하려고 한다. 예컨대 한 경쟁자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늘리면, 이는 다른 경쟁자들의 위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다른 경쟁자들 또한 지출을 늘리게 된다. 그러나 모든 경쟁자가 동시에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출을 반복적으로 늘린다면, 경쟁자 간의 실질적인 위치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다른 경쟁자의 상대적인 성과에 따른 각 경쟁자의 위치적 보상 정도가 클수록 이와 같은 투자의 유인은 커진다.

위치적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람들은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린다. 그러나 경쟁자의 위치에 따른 이익이 한정되어 있고 투자의 결과 각자의 위치에 별 효과가 없다면 소모적인 지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투자 행태를 군비 경쟁에 비유하여 ‘위치적 군비 경쟁’이라고 부른다. 위치적 군비 경쟁은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 비효율성을 가져오는데, 이는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것이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모든 의사 결정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 우선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의 결과가 사회 전체에 다소간 기여할 수 있다면 모든 구성원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쟁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경쟁이 과열되고 더 이상 사회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개인의 이익만을 위한 과도한 투자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가져오는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더구나 개인 간에 위치적 외부성이 강하게 작용하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불필요한 경쟁으로 인해 초래되는 비효율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사회가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는 단계에 이르면 경쟁을 자제시키는 사회적 규범이 생겨나거나 경쟁을 제약하기 위한 구속력 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되기도 한다.

Q. 밑글의 내용으로 알 수 없는 것은?

- ① 위치적 외부성은 비슷한 수준의 경쟁자 사이에서 크게 작용한다.
- ② 위치적 외부성이 나타나면 경쟁자의 비용 지출이 수반될 수 있다.
- ③ 위치적 보상은 개인의 유인과 사회 전체의 유인의 차이가 클수록 증가한다.
- ④ 위치적 군비 경쟁의 비효율성을 인식하면 사회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 ⑤ 위치적 외부성으로 인한 경쟁의 결과가 경쟁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PART 01. 문장 단위 독해 연습

1. 개념의 정의

일반적인 정의

1. 이용의 자주성은 상황에 알맞게 디지털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 정말 단순하네요. ‘이용의 자주성’에 대한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의 자주성(S)이 디지털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는 능력(V)이라는 것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디지털 매체를 상황에 ‘알맞게’, 그리고 ‘적절히’ 활용(이용)하기 때문에 ‘자주성’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생각해보시면 더욱 훌륭합니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이용자가 자신의 ‘자주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특정 개념의 정의를 더욱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삽입 정렬은 정렬된 부분에 정렬할 원소의 위치를 찾아 삽입하는 방식이다. (2020학년도 10월 학력평가)

→ ‘삽입 정렬’은 정렬된 부분에 정렬할 원소의 위치를 찾아서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중간에 원소를 ‘삽입’해서 ‘정렬’하는 방식이 바로 ‘삽입 정렬’인 것이죠.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 어렵지 않게 정의를 체크할 수 있어요.

3. 반론권은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문제가 된 언론 보도 내용 중 순수한 의견이 아닌 사실적 주장(사실에 관한 보도 내용)에 대해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지면이나 방송으로 반박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 조금 길게 정의가 제시되고 있네요. S와 V에 주목하며 긴 문장을 완벽하게 정리해봅시다.

→ ‘반론권’은(S) ‘반박할 수 있는 권리’네.(V) → 누가 뭘 반박할 수 있는 거지? →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언론 보도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것이구나.

→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 S와 V를 잡으며 읽는 것이 너무 불편한 학생들은, 그냥 처음부터 쪽 읽되 ‘키워드’를 잡으며 읽어주시면 돼요. “‘반론권’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언론 보도 중 ‘사실적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권리구나.” 정도로 말이죠.

→ 이런 ‘키워드’를 잡는 것은 경험을 통해 쌓은 일종의 ‘감’이 필요합니다. 이 ‘감’이 잘 오지 않는 학생들은 S와 V에 주목하며 강제로나마 ‘감’을 키워봅시다.

→ 나아가, ‘반론권’ 자체가 ‘반/론/권’이니, ‘반박’을 ‘논’할 수 있는 ‘권리’ 정도로 납득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며 이해하면 훨씬 깊게 납득하며 읽을 수 있습니다. 틈날 때마다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4

언어 지도는 일정 지역의 언어적인 차이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지도 형식을 빌려 표시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언어를 공간적으로 투영한 것이다.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 이번에도 S와 V에 맞춰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보고, 해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언어 지도’는(S) ‘지도 형식을 빌려 표시한 것’이자, ‘언어를 공간적으로 투영한 것’입니다.(V)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념에 두 가지 이상의 정의가 제시되기도 해요. 이때 이 여러 가지 정의들은 서로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정의들을 하나로 묶어서 인식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래와 같은 사고과정을 통해 읽어볼까요?

→ ‘언어 지도’는(S) ‘지도 형식을 빌려 표시한 것’이구나.(V) → 무엇을 표시한 것이지? → ‘일정 지역의 언어적인 차이’를 표시한 것이구나! →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데’, 이러한 변화에 의해 나타난 ‘차이’를 ‘공간적’으로 투영한 것이 곧 ‘언어 지도’구나.

→ ‘지역’의 언어적인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언어를 ‘공간적’으로 투영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겁니다. ‘지역’이라는 ‘공간’의 ‘차이’에 주목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시되는 정의들은 최대한 하나의 말로 묶으면서 정보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계속 연습해 봅시다.

5

하나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2학년도 7월 학력평가)

→ ‘동일성’의 정의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대상이 사라지거나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도 ‘동일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주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 여기까지 파악하면 ‘동일성’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동일성’은 말 그대로 대상이 ‘동일하게(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말이 ‘하나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처럼 문장을 하나씩 꼼꼼히 뜯어가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6

일반적인 소리는 사람의 귀로 감지할 수 있지만 초음파는 진동수가 20,000Hz가 넘어서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이다.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 ‘초음파’라는 개념의 정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소리’라는 개념과 비교되어 제시되고 있어요. 이렇게 특정 개념을 다른 개념과 ‘비교’하며 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두 개념 모두를 챙겨 가는 센스를 발휘할 수 있겠죠? 이번에도 S와 V를 생각하며 사고과정을 정리해봅시다.

→ 초음파는(S)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구나.(V) → 왜지? → 진동수가 20,000Hz가 넘기 때문이구나. → 그런데 ‘일반적인 소리’는(S) 귀로 감지할 수 있다고 있다고 하네?(V) → 그럼 ‘일반적인 소리’는 진동수가 20,000Hz를 넘지 않겠구나.

→ 이처럼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 ‘일반적인 소리’의 진동수에 대한 내용까지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정확하게 체크하는 습관이 들어 있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생각일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거치면서 정의를 체크한다면, 굳이 억지로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초음파’라는 중요 정보의 정의를 머릿속에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7
실체설은 인권과 같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를 공익이라 보는 입장이다. (2022학년도 3월 학력평가)

→ 이번엔 ‘실체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던 대로 천천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주어부터 천천히 볼까요? 실체설(S)은 공익을 바라보는 것(V)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실체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를 공익으로 간주합니다. 그 예시로는 인권이 있습니다.

→ 인권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합의된 가치이죠? 그리고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가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권처럼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는 ‘공익’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공적으로 정한 합의이고,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기 때문이에요.

8
‘예술계’란 어떤 대상을 예술 작품으로 식별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당대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지식과 이론 그리고 태도 등을 포괄하는 체계를 가리킨다. (2016학년도 3월 학력평가)

→ ‘예술계’는 예술 작품을 판단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판단 기준 정도로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행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도 아주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예술 작품’으로 식별하려면 일정한 기준이 먼저 있어야 하니까요.

→ 그리고 예술계는 예술과 관련된 지식이나 이론, 태도 같은 것들을 포괄하는 ‘체계’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앞의 정의와 엮어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술계는 예술 작품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예술계를 기준으로 예술 작품을 판단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술계를 중심으로 예술을 판단한다는 건, 당대의 ‘지식, 이론, 태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술 이론이나 지식 같은 것들이 먼저 있고 이것들이 기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예술계입니다.

9
정의(正義)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로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개개인에게 할당하고 이익과 부담을 분배하기 위한 기준이 된다. (2017학년도 7월 학력평가)

→ ‘정의’는 사회에 필요한 ‘공정한 도리’입니다. 말 그대로 ‘정의(justice)’입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합니다. 이 다음을 정의의 정의를 바탕으로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는 사회에 필요한 공정한 도리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이 ‘정의’를 기준으로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할당해야 할 것이고, 이를 중심으로 이익과 부담을 분배해야 하겠죠.

→ 만약 권리나 의무를 배분할 때 정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회의 구성과 유지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정의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뒷 내용을 읽는다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

미적 무관심성이란 대상의 아름다움을 판정할 때 요구되는 순수하게 심미적인 심리 상태를 뜻한다.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 ‘미적 무관심성’의 정의가 등장합니다. 미적 무관심성은 아름다움을 판단할 때 필요한 ‘순수하게 심미적인’ 심리적 상태입니다. 즉, 다른 것들에는 ‘무관심’한 채 오로지 대상의 ‘아름다움’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미적 무관심성’이라고 하나 봅니다. 이렇게 항상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읽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11

터널 절연체는 전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 일반 절연체와는 다르게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는 전자를 통과시킨다.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A형)

→ 이번에도 ‘터널 절연체’라는 개념의 정의를 ‘일반 절연체’와의 비교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 문장과 똑같이 처리해볼까요?

→ 터널 절연체는(S) 전자를 통과시키는구나.(V) → 언제? → 일정 이상의 전압이 가해졌을 때! → 그런데 ‘일반 절연체’는(S) 전류 흐름을 ‘항상’ 차단하는구나(V) → 그럼 ‘일반 절연체’는 어떤 상황에서도 전자를 통과시키지 않겠구나. → 그리고 문장 구조에 따르면, ‘전류 흐름’이라는 말이 ‘전자 통과’라는 말과 같게 쓰이고 있구나.

→ 이렇게 ‘비교’를 통해 ‘전자 통과 가능’이라는 ‘터널 절연체’의 정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 절연체’의 특징과 함께, ‘전류 흐름=전자 통과’라는 ‘같은 말’까지 인식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렇게 ‘같은 말’을 인식하는 것은 독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12

조류와 포유동물들은 주로 내온성인데, 이는 체내의 물질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열에 의해 체온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학년도 사관학교)

→ ‘내온성’의 정의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내온성’은 ‘몸 안(체내)’의 대사 과정에서 생긴 ‘열’로 ‘체온’을 유지하는 성질입니다. 이번에도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내온성’은 말 그대로 체‘내’에서 만든 ‘열’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예요.

→ 이를 이해하면 조류와 포유동물이 주로 내온성이라는 말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조류와 포유동물들은 대부분 몸 안에서 만든 열을 통해 체온을 유지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예요. 이 문장을 읽으면 바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합니다.

13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은 온몸에 퍼져 있는 감각 신경의 말단에서 받아들이는데, 이 신경 말단을 통각 수용기라 한다.

(2020학년도 3월 학력평가)

→ ‘통각 수용기’는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 신경의 말단입니다. 그리고 이 자극이 곧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이라고 합니다. 즉, ‘통각 수용기’는 ‘통증’을 ‘수용’하는 ‘감각’ 신경의 말단입니다. 그러니까 ‘통각 수용기’인 것이예요. 이 역시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읽는다면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입니다.

14

국가배상이란 위법한 국가 작용으로 인해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는 제도이다. (2022학년도 사관학교)

→ 이번엔 ‘국가배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국가배상’은 말 그대로 ‘국가’가 개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가 직접 ‘배상’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또한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어주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국가배상’이라는 단어만으로도 충분히 정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국가배상’ 제도입니다.

→ 내용 자체도 어렵지는 않죠? 국가가 손해를 끼쳤으면 당연히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구현하는 제도가 바로 ‘국가배상’입니다.

15

생명의 구조를 이용하여 인간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술을 생명 공학 기술이라 한다. (2001학년도 수능)

→ 이번엔 ‘생명 공학 기술’의 정의를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이것 또한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의 구조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기술’이 바로, ‘생명 공학 기술’입니다. 생명의 구조를 공학적으로 연구하여서 인간에게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기술이니까 ‘생명 공학 기술’인 것이예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16

금융의 사회적 역할, 나아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보자면, 금융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최소한의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는 보편적 권리의 대상이자,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 ‘금융’이라는 개념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가 너무 길게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점’이라는 제한도 걸려 있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처리해야 해요. 어떻게 처리하는 게 효율적일지 ‘생각’하며 정리해 봅시다.

→ ‘금융’을 정의하기 전에 어떠한 ‘관점’을 제시하고 있구나. → 이는 ‘사회적 역할’, ‘공공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관점이구나. → ‘사회적 역할’이라는 말과 ‘공공성’이라는 말은 사실상 같은 말이구나. → ‘금융’을 조금 공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인가보네. → 이 관점에 따르면 ‘금융’은(S) ‘보편적 권리의 대상’이자,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이구나.(V) → 둘 다 ‘공적인 차원’과 관련된 좋은 말이구나. → 결국 ‘금융’을 공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구나.

→ 조금 복잡했죠? 핵심은 결국 ‘다 같은 말’임을 인지하며, ‘금융=공적인 차원’이라는 정의를 건져 내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왔다갔다 불편하겠지만, 나중에는 쪽 읽어도 너무나 당연하게 정리되는 내용들이 될 것이예요.

17

컴퓨터 지도는 수치 지도(디지털 지도)라는 점에서 기존의 종이 지도와는 크게 다르다. 수치 지도는 기존의 지도에서 사용되던 기호 체계를 사용하되, 각종 지리 정보들을 표준 코드로 분류하여 저장한 지도이다. (2003학년도 수능)

→ 컴퓨터 지도의 정의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컴퓨터 지도 = 수치 지도 ≠ 종이 지도’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수치 지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째서 종이 지도와 다른지도 아직 알 수 없습니다.

→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수치지도가 무엇이길래 종이 지도와 다른 걸까?”라는 생각으로 다음 문장을 읽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뒤에서 수치 지도의 정의를 확인하고 무엇이 종이 지도와 다른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수치’ 지도는 기존의 지도에서 사용하던 기호 체계를 사용하지만, ‘표준 코드로’ 그 정보들을 분류·저장한 지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지도’는 ‘종이 지도’를 가리킨다는 점 정도는 꼭 파악해야 합니다.

→ 그렇다면 수치 지도는 말 그대로 기존의 종이 지도에서 사용한 기호를 ‘표준 코드로’ ‘수치화’해서 저장한 지도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코드’라는 말이 곧 ‘수치’라는 것,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읽어 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것이 곧 컴퓨터 지도의 특징이자, 종이 지도와의 차이점이 되는 것이예요. 계속 스스로 생각하면서 문장을 읽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18

먹으로 난초를 그린 목란화는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그림으로, 여느 사군자화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다.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AB형 공통)

→ 여러분이 먼저 잡을 수 있는 정의를 모두 잡아보시고 아래 해설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 일단 먹으로 ‘난초’를 그린 것이 ‘목란화’의 정의라는 것, 그리고 ‘목란화’가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그림이라는 걸 잡아야겠네요. ‘목란화’의 정의에서 ‘난초 그림’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지만, ‘관념 투영’은 새로운 정보입니다. 따라서 ‘목란화=관념 투영’이라는 새로운 정보에 더욱 주목할 수 있어야겠죠? 앞에서 ‘목란화’가 ‘난초 그림’이라는 걸 체크하며 읽었다면, 뒤에 나온 정의를 읽을 때부터 ‘난초 그림’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넣은 상태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제시된 정보는 확실하게 정리해두어야, 새로운 정보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 그런데 이 ‘목란화’가 ‘사군자화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가질 품성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란화’ 뿐만 아니라 ‘사군자화’도 군자의 품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봤던 ‘비교를 통한 정의’와 같은 맥락이네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흘려서 서술해주는 정보가 어려운 선지로 탈바꿈하기도 합니다. ‘사군자화는 군자의 품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 공부를 시작하는 딱 지금, 천천히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19

합리적 무지 모형이란 유권자가 정보를 습득하는 비용이 정보로부터 얻을 편익보다 클 경우 정보를 습득하지 않고 무지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이론이다. (2022학년도 7월 학력평가)

→ ‘합리적 무지 모형’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단어만 딱 보면 느낌이 이상합니다. 합리적인데 무지하다고...? 게다가 정의가 한 문장임에도 꽤 깁니다. 천천히 읽으셔야 합니다. 일단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유권자’가 정보를 얻을 때 그 정보를 얻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크다면 정보를 얻기를 포기한다는 이론입니다.

→ 여기서 ‘정보를 습득하지 않는다 = 무지한 상태’임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정보를 얻지 않으니까 당연히 무지한 상태이겠죠? 그리고 이때 유권자가 편익(이익)과 비용을 비교하여서 ‘무지한 상태’를 유지할지 말지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합리적 무지 모형’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때 정보 습득을 포기하는 것은 ‘무지한 상태’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 무지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 유권자가 정보 습득에 대한 비용이 커서 정보 습득을 포기한다면 결과적으로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지한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판단하는 과정은 어떤가요? ‘합리적’입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큰지 손해가 큰지 잘 비교해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천천히 읽고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20

해시 함수란 입력 데이터 x 에 대응하는 하나의 결과 값을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수학적 함수이다. 그리고 입력 데이터 x 에 대하여 해시 함수 H 를 적용한 수식을 $H(x)=k$ 라 할 때, k 를 해시 값이라 한다.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A형)

→ 수학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신 분들에게 공포스러울 수 있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건 없어요. 우리는 ‘국어 영역’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 체크’라는 목적만 가진 채로, 수식이 아닌 ‘글’을 읽어봅시다.

→ ‘해시 함수’라는 개념을 먼저 정의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죠? 이번에도 S 와 V 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고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 ‘해시 함수’는(S) ‘수학적 함수’이구나.(V) → 그런데 어떤 함수지? → ‘입력 데이터’ x 에 대응하는 ‘결과 값’을 일정한 길이의 ‘문자열’로 표시하는 것이구나. →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로부터 어떤 ‘결과 값’을 나타내고, 이를 ‘문자열’로 표시하는 것이구나. 그럼 ‘결과 값’과 ‘문자열’이 나타내는 정보는 같겠네.

→ 다음 문장에서는 ‘해시 값’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있네. ‘입력 데이터’ x 에 대하여 ‘해시 함수’를 적용했을 때 나오는 값 k 가 곧 ‘해시 값’이네. 그럼 앞 문장에서 말한 ‘결과 값’이 ‘해시 값’과 같은 말이 되는 것이구나.

→ 꽤나 어렵죠? 연속되어 제시된 ‘정의’를 바탕으로 ‘같은 말’까지 잡아낼 것을 요구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도 이런 문장들에 강해지셔야 합니다. 최근 시험들에서 강조되는 경향 중 하나예요!

21

예란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그 사회에 맞게 규범화한 것으로 단순히 신분적 차이를 드러내거나 행동을 타율적으로 규제하는 억압 장치는 아니었다. 예는 개인의 윤리 규범이면서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제도였으며,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사회적 장치였다.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 문장이 조금 깁니다. 당황하지 말고 하던 대로 주어와 서술어부터 파악해봅시다. 일단 ‘예’라는 개념은(S) ‘도덕적 본성을 그 사회에 맞게 규범화한 것’(V)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라는 어휘의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 그런데 이는 단순히 ‘신분적 차이’를 드러내거나 ‘행동을 타율적으로 규제’하는 억압 장치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신분적 차이’, ‘행동의 타율적 규제’는 모두 ‘도덕적 본성의 규범화’라는 ‘예’의 정의를 기반으로 했을 때 충분히 관련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도덕’에 따라 행동하면 ‘신분적 차이’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나의 행동도 ‘타율적으로 규제’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고 하니 특이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강하게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 ‘예’는 ‘개인의 윤리 규범’, ‘사회와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는 제도’, ‘인간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는 사회적 장치’였다고 합니다. 다 새로운 정보처럼 보이지만, ‘도덕적 본성의 규범화’라는 ‘예’의 정의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도덕적 본성의 규범화’라는 정의를 중심으로 최대한 납득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2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으로, 형사사법기관의 위법한 증거수집을 억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021학년도 4월 학력평가)

→ 꽤나 어려운 말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천천히 봅시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정의가 제시됩니다. 이 원칙은 제대로 된 절차(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유일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

42

① 수학은 본래 자연에 대한 관찰과 실생활의 경험을 통해 얻은 실용적인 사실들의 수집에서 출발했다. ② 그 후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르러 증명과 공리(公理)적 방법의 도입으로 확고한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③ 여기에서 증명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 위한 논리적 설명이고, 공리적 방법은 증대된 수학 지식의 체계적인 정리(整理)라고 할 수 있다. ④ 그러므로 증명이나 공리적 방법은 발견의 도구가 될 수는 없으며, 창의적 발상을 저해할 수도 있다. (1999학년도 수능)

① 수학의 정의를 제시합니다. 수학은 자연에 대해 경험적으로 얻어진 실용적인 사실들의 수집에서 출발했다고 해요.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사실들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수학입니다.

② 이후 고대 그리스 시대 때부터 증명이나 공리적 방법으로 체계를 갖추었다고 해요. 이 두 문장을 읽고 수학의 정의를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학은 경험적이고 실용적인 사실들을 수집한 학문으로, 현재는 증명과 공리적 방법까지 갖춘 학문입니다. '증명'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인데, '공리적 방법'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학의 체계와 관련된 정보라는 점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③ 그렇게 넘어오면 '증명'과 '공리적 방법'의 정의가 제시됩니다. 증명은 설득을 위한 '논리적 설명', '공리적 방법'은 체계적인 정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학은 결국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이죠? 경험적이고 사실적인 수집에 그치지 않고, 논리적인 체계까지 갖춘 학문입니다.

④ 다음 문장은 증명과 공리적 방법에 대한 재진술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증명과 공리적 방법은 논리적 설명이고 체계적인 정리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는 '발견'을 할 수 없습니다. 증명은 있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공리적 방법도 있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법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창의적 발상을 저해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사실만을 설명하고 정리하는 방법들이기 때문에, 창의적 발상은 당연히 저해될 것입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거나 창조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는 수학의 정의를 떠올리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학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나요? '경험'을 통해 얻은 실용적 사실들의 '수집'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본래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학문입니다. 그리고 '증명'이나 '공리적 방법'은 수학의 체계를 정리하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즉, '증명'과 '공리적 방법'은 애초에 발견된 사실을 정리하는 도구에 불과하므로 '발견'의 도구가 될 수 없고 '창의적 발상'을 저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43

① 스톨니츠는 우리가 미적 태도로 지각하는 모든 대상은 미적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② 그가 말하는 미적 태도는 그것이 예술 작품이든 아니든, 감상자가 지각하는 대상 자체를 '무관심적'이면서 '공감적'으로 '관조'하는 태도이다. ③ 스톨니츠가 말하는 미적 태도에서의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 관심이 없는 '비관심적'과는 다르다. ④ 무관심적이라는 것은 대상을 사용하거나 조작하여, 무엇을 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⑤ 다시 말해 무관심이라는 것은 대상에 대해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 보이고 느껴지는 대로 관심을 가지고 본다는 것이다. ⑥ 예를 들어 누군가가 사과를 볼 때, 어떤 지식이나 수익을 얻으려는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과라는 대상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다. (2021학년도 4월 학력평가)

① 스톨니츠가 생각하는 미적 대상의 정의가 드러납니다. '미적' 대상은 '미적' 태도로 지각하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미적 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최대한 읽어 줍시다.

② 그렇게 넘어오니까 앞에서 궁금해했던 ‘미적 태도’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미적 태도는 대상을 ‘무관심적’으로, ‘공감적’ 태도로 ‘관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태도인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으니, 일단 정의만 잡고 넘어가봅시다.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반드시 뒤에서 재진술이든 예시든 풀어서 설명해 줄 테니까요!

③ 네, 다행히도 ‘무관심적’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해줍니다. ‘비관심적’이라는 것과 비교하면서 ‘무관심적’을 설명하려고 해요. ‘비관심적’의 정의가 수식된 형태로 제시되고 있으니 놓치지 않고 체크합니다. 그런데 ‘비관심적’의 정의가 대상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무관심하다’라는 의미가 ‘비관심적’의 정의입니다. 수식된 정의를 놓쳤다면 독해가 망가질 뻔 했네요. 우리는 항상 지문에서 주는 정보들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해요. 아무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무관심적’의 정의입니다. ‘비관심적’과 다른 ‘무관심적’의 정의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해요.

④ 바로 ‘무관심적’의 정의를 설명합니다. 이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조작하거나 취하려는 ‘관심(목적)’을 갖지 않고 대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네요.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비관심적’과의 차이를 아시겠죠?

⑤ 앞에서 설명한 ‘무관심적’의 정의를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무관심’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관심적), 이해관계를 떠나 있는 그대로 보는 태도입니다. 즉, 나의 이익관심(이해관계)이 전혀 없는 상태(무)에서 바라보는 태도이므로 ‘무관심’적인 것입니다. 만약 ④번 문장을 보고 ‘무관심적’의 정의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 문장을 보고서라도 바로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⑥ 이번엔 ‘무관심적’의 사례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재진술에 이어서 예시까지 등장하니 꼭 이해해줘야겠죠? 그러므로 ‘무관심적’의 정의(원리)를 떠올리면서 읽어야 합니다. 사과라는 대상을 보는 상황이 제시됩니다. 그리고 이 사과(대상)를 볼 때 지식이나 수익을 얻으려는 ‘관심’에서 벗어난 채로 사과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무관심적’ 태도입니다. 관심(이해관계)을 배제하고 보는 것이 ‘무관심적’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44

①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②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③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리된 것이 아니다. ④ 어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도구, 지적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⑤ 요컨대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⑥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폴라니의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2016학년도 수능 B형)

① 지식 경영론에서 중요한 ‘암묵지’ 개념을 제시합니다. 그럼 이 개념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② 수식된 정의로 암묵지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고, 주체에게 ‘체화’된 것이 ‘암묵지’ 개념입니다. 즉, 가시적이지 않고 체화되어 ‘암묵’적으로 있는 모든 정보가 ‘암묵지’인가 봅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정의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암묵지 개념을 통해 모든 지식이 주체(인간)와 분리될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암묵지의 정의 기억나시죠? 주체에게 체화된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주체와 분리될 수 없겠죠.

③ 재진술 문장입니다. 모든 지식이 주체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적 지각과 고도의 과학적 지식 같은 것들이 지적 활동의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이랑 관련이 있다는 말이에요. 암묵지와 관련된 내용을 쉽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지식이 주체와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을 재진술하고 있어요.

④ 이번에도 재진술입니다. ‘지각 활동이나 관찰, 추론 활동’은 인간의 ‘지적 활동’을 가리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지적 수단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우리의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즉, 우리의 지적 활동이 암묵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주체와 분리될 수 없다는 핵심을 반복하고 있군요.

⑤ 또 재진술입니다. 모든 지식이 암묵적 요소와 연결됩니다. ‘인간적 행위’를 통해서요. 결국엔 지식이 주체(인간)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⑥ 예시까지 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말은 곧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체화된 것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암묵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문장에서 ‘암묵지’라는 단어까지 반복해서 설명해주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줍시다. 핵심을 잘 파악하면서 읽었다면 ③~⑥번 문장이 하나의 핵심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문장들이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을 몰랐다면, 최소한 마지막까지 읽고 ‘암묵지’가 주체와 분리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사실 하나라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45

① 17세기에 수립된 뉴턴의 역학 체계는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물체의 운동을 취급하였는데 공간 좌표인 는 모두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② 뉴턴에게 시간은 공간과 무관한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것이었다. ③ 즉, 시간은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것으로, 우주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과 아무 관계없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④ 시간은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는 물리량이며 모든 우주에서 동일한 빠르기호 흐르는 실체인 것이다.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① 뉴턴 역학에 대해 설명합니다. 뉴턴은 3차원 공간에서의 운동을 설명하는데, 3차원 공간 좌표는 모두 ‘시간’에 따라 변하는 대상입니다. 여기서 ‘3차원 공간’에서 일어나는 물체의 운동을 시간에 따른 변화로 설명한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x, y, z가 3차원 공간 좌표라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죠?

② 시간의 정의가 제시되는데, 이 개념은 공간과 무관한 독립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즉,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일종의 ‘고정값’인 것이죠. 앞 문장과 엮어서 읽어볼까요? 뉴턴 역학에서 운동은 절대적인 시간의 영향을 일방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③ 시간에 대한 재진술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읽고 나서는 무조건 시간이 ‘고정값’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야 합니다. 시간은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네, 절대적인 개념이고 고정값 그 자체이네요. 뒷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의 생성·소멸과 무관하게 ‘항상’ 같은 방향으로 흐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변화 없이 흐른다는 뜻입니다. 흐르는 방향에도 변화가 없으니 고정값이네요.

④ 이번에도 시간을 재진술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고, 빠르기도 고정된 절대적인 값이 시간입니다. 정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고정값이라는 사실만 체크하면 충분합니다.

46

① 기계론적 관점은, 세계에는 어떤 궁극의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기계적인 법칙만이 존재한다고 보는 관점이다. ② 이 관점에 따르면 세계는 정교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질량, 속도 등의 역학적 개념들만으로 세계의 현상들을 설명해야 한다고 본다. ③ 따라서 세계가 오늘날과 같이 변화한 것에 어떤 궁극적인 목적은 없고 오직 인과관계의 법칙성만이 존재한다고 본다. ④ 이와 달리, 목적론적 관점은, 세계에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전제되어 있고 세계는 이것을 향해 운동하고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⑤ 그래서 세계가 오늘날과 같이 변화한 것은 이상적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계는 완전하지 않다고 본다. (2016학년도 4월 학력평가)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1문단

①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직면했을 때 상대방에게 개인적 선호(選好)를 드러내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할까? ② 도덕 철학자들은 이 물음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 반응을 보이며 도덕적 정당화의 조건으로 공평성(impartiality)을 제시한다. ③ 공평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④ 사람들은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모두 신체와 생명, 복지와 행복에 있어서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 ⑤ 따라서 어떤 개인에 대해 행위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도덕적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⑥ 공평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가에 따라 행동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① 물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서, '개인적 선호'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정당한지가 물음의 핵심이군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핵심에 대한 답을 생각하며 읽어야겠죠? 특히 첫 문단에서 제시된 물음이라는 점에서,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이 지문의 화제가 되겠습니다. 도덕적 선택의 순간에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는 것은 정당할까요?

② 이 문장에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도덕 철학자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고 해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개인적 선호'가 개입된 선택이 정당화되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도덕 철학자들은 도덕적 선택의 상황에서 '공평성'이라는 것을 만족해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공평'성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지 말고 '공평'하게 따지라는 뜻이겠죠? 이처럼 단어의 의미를 살려 읽되, '개인적 선호'라는 화제와의 연관성을 끊임없이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도덕적 정당화의 조건인 '공평성'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③ '공평주의자'라는 사람들의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평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이겠죠? 이들의 입장에서 특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해요.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니 당연한 말이겠습니다. 단어의 의미를 살리면서 정의를 납득하고 넘어 갑시다.

④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도 '공평'하게 대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표지 없는 재진술이네요!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또 재진술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라는 표지도 있으니 꼭 재진술로 읽어 주셔야 합니다. 행위자의 '선호'를 표현하는 도덕적 선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해요. 첫 문장에서부터 이야기하던 '개인적 선호'를 다시 한번 끌고 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해야 하니, '선호'를 드러내어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겠어요.

⑥ '공평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공평주의자들은 사람들 간의 차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까지는 재진술처럼 읽어 주셔야 해요. 아무튼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들은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주목합니다. '인종, 성별, 연령'과 같은 개인적 요소가 아닌,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첫 문단은 '공평주의자'들이 '상황'에 따라 도덕적 선택을 다르게 해야 정당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첫 문단을 읽었으니, 화제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겠죠? 이 지문은 '공평주의자'가 제시하는 '도덕적 정당화'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것입니다. 이들에 따르면 어떤 도덕적 선택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일단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지 말고, 개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알았는데 말이죠.

2문단

① 그런데 우리 모두는 특정 개인과 특별한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② 상대가 가족인 경우는 개인적 인간관계의 친밀성과 중요성이 매우 강하다. ③ 가족 관계라 하여 상대에게 특별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을까? ④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⑤ 다음 두 경우를 생각해 보자.

① 이렇게 '공평주의자'들은 사람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지만, (이렇게 앞 문단의 내용과 연결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친분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② 앞 문장에 대한 예시입니다. '가족'인 경우는 친분 관계의 정도가 매우 강하기도 하네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선호'라는 걸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잘못된 도덕적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③ 우리가 궁금해하던 내용을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첫 문단에 제시되었던 물음과 똑같은 걸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선호'를 표현하는 행동은 진짜 잘못되지만 한 것일까요? 아마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겠죠?

④ 아니나 다를까 다음 물음에선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묻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용된다면'에 주목해야 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개인적 선호가 허용되는 경우에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리라는 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앞 문단의 내용을 잊지 않고 있었다면, 앞 문단에 나왔던 공평주의자들의 주장, 즉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행동이 결정되어야 정당화된다는 내용을 떠올릴 수 있겠죠. 허용하는 선은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되겠네요. 단어를 바탕으로 하나의 문장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엮어 '독해'하는 것. 수능 국어 영역 독서의 전부입니다.

⑤ 두 경우를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예시가 등장하겠군요. 이 상황들이 모두 '선호'를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보고 읽어봅시다. 항상 예시가 나올 땐 무엇에 대한 예시인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3문단

- ① 철수는 근무 중 본부로부터 긴급한 연락을 받았다. 동해안 어떤 항구에서 혐의자 한 명이 일본으로 밀항을 기도한다는 첩보가 있으니 그를 체포하라는 것이었다.
- ② 철수가 잠복 끝에 혐의자를 체포했더니, 그는 하나밖에 없는 친형이었다. ③ 철수는 고민 끝에 형을 놓아주고 본부에는 혐의자를 놓쳤다고 보고했다.

①~③ 사례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의 '선호'라는 원리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철수가 체포한 혐의자는 철수의 형, 즉 '가족'이에요. 철수가 형이라는 '가족'을 놓아주었다는 것은 가족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드러낸 행동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럼 철수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겠네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해요! 뒤에서 우리가 생각한 내용을 그대로 옮겨주고 있을 것입니다.

4문단

- ① 민수는 두 사람에게 각각 오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② 한 명은 삼촌이고 다른 한 명은 사업상 알게 된 영수였다. ③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오천만 원이 급히 필요하게 되었고, 그보다 적은 돈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 ④ 이를 알게 된 민수는 노력한 끝에 오천만 원을 마련

하였고, 둘 중 한 명에게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 ⑤ 민수는 삼촌의 빚을 갚았다.

①~⑤ 이번에도 그리 어렵지 않은 사례네요. 민수가 똑같이 어려움에 처한 삼촌과 영수 중 삼촌의 빚을 먼저 갚아 준 상황입니다. 이번에도 '개인적 선호'를 드러냈으니 정당화되기 어렵겠네요.

하지만 한 단계 더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굳이 똑같은 상황을 두 가지나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민수의 사례는 철수의 사례와 무엇이 다를까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읽고 있는 사례는 어떤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인가요?

하나는 위에서 이야기한 대로 '개인적 선호'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2문단에 제시된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라는 물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개인의 상황에 따라'라는 것까지도요.

이에 의하면 철수와 민수의 사례에는 '상대방의 상황'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철수의 사례는 그저 혐의자를 잡아보니 형이었던 것이고, 민수의 사례는 삼촌과 영수가 비슷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으니까요.

물론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수의 사례가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것인지 명확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읽어봅시다.

5문단

- ① 철수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② 혐의자가 자신의 형임을 알고 놓아주었으므로 그의 행동은 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다. ③ 따라서 그는 모든 사람의 복지와 행복을 동일하게 간주해야 하는 공평성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④ 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① 첫 번째로 등장한 철수 예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화제 기억나시죠? 도덕적 정당화! 그래서 여기서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답을 이제 제시할 것입니다.

② 도덕적 정당화가 가능한지 묻고 있으니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해야 할 텐데, 철수는 자신의 '개인적 선호'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행동은 정당화되기 어렵겠죠?

③ 이 포인트를 재진술하는 문장입니다. '따라서'라는 표지도 있으니 꼭 인지하셔야 해요. 개인적 선호를 표현함에 따라 '공평성'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정당화는 불가능하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해요.

④ 아주 친절한 재진술 문장입니다.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개인적 선호'를 표현했기 때문이에요!

6문단

① 그렇다면 민수의 행동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② 그는 분명히 삼촌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표현했다. ③ 민수가 공평주의자라면 삼촌과 영수의 행복이 동일하기 때문에 오직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④ 만약 영수가 더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삼촌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영수의 빛을 갚아야 한다. ⑤ 그러나 삼촌과 영수가 처한 상황이 정확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민수에게는 개인적 선호가 허용된다.

① 이번엔 궁금했던 민수의 사례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번에도 물음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이렇게 지문의 흐름을 잡거나, 앞으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알려 주는 형태의 문장들이 없어도 여러분은 끊임없이 '생각'하며 지문의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② 아무튼, 민수는 분명히 삼촌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드러냈습니다. 여기까진 어렵지 않아요. 가볍게 읽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이제 민수는 삼촌과 영수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했어야 한다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공평주의자'는 개인들의 '상황'을 중시했으니 이에 대한 고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에서 본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지문을 읽어 주셔야 합니다.

④ 공평주의자답게 만약 영수가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반드시 영수의 빛을 갚아야 했다고 합니다. 삼촌이라는 '가족'에게 더 친밀감을 느낀다는 '선호'를 드러내지 않고 '상황'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여러 사람 중 한 사람에 대한 행위를 해야 할 때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겠죠. 철수의 사례에선 형 한 사람에게 대한 행위 선택이었지만, 민수는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만 행위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⑤ 네, 삼촌과 영수의 '상황'은 정확하게 동일했습니다. 사례가 소개될 때 나와 있던 내용이네요. 그렇기에 민수에게는 '개인적 선호'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추론'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다면, 둘의 상황이 달랐다면 '개인적 선호'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정리하면, '공평주의자'가 고려하라고 하는 '상황'은 '개인적 선호'보다 우선시되는 것이지만 '상황'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 '개인적 선호'를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 낸다면,

만약 허용된다면 어느 선까지 가능할까?

2문단에 나온 '어느 선'에 밑줄을 치고 지문에서 같은 말을 찾으라고 하는 식의 출제도 가능하겠죠. 우리는 '상대방의 상황이 동일할 때'가 바로 그 '선'이라는 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평가원은 자신의 물음을 반드시 회수하려는 모습을 보여요. 질문이 나오면 그에 대한 답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 왜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7문단

① 강경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런 순간에도 주사위를 던져서 누구의 빛을 갚을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이는 개인적 선호를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이다.
 ③ 반면 온건한 공평주의자들은 이러한 주장이 개인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할 여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④ 이러한 여지가 개인적 선호의 허용 범위라는 것이다. ⑤ 그들은 상황적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적 선호를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① 이번엔 '강경한 공평주의자'의 입장이 드러납니다. 이들은 '상황이 완전히 동일한 순간'에도 주사위를 던져야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 선호'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개인적 선호'가 허용되는 '선' 같은 건 없습니다. 오로지 '상황'에 따른 판단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 방금 설명한 포인트를 반복하는 재진술 문장입니다. '이'와 같은 재진술의 표지가 보였다면, 잘 읽은 것입니다.

③ 이번엔 '온건한 공평주의자'의 입장이 제시됩니다. '온건'하다는 것부터 '강경'과는 다른 입장을 보이겠죠? '개인적 선호'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선호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가족 등에게 '선호'를 표현하는 건